

연애와 배움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박 동섭(littleegan@gmail.com)

여기가 중요한 점입니다.

사제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아름다운 오해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 점에서 연애와 똑같습니다. 연애의 경우 옆에서 보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못생긴 남자와 성격이 안 좋은 여자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 거기서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였다고 믿었다고 합시다. 그 때 사랑에 빠진 사람이 경험하는 것은 틀림없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 때의 도취와 고양과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은(혹여 나중에 그것에 대해 환멸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리얼타임에서는 압도적인 현실입니다.

이것과는 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우리 주위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소개팅 같은 것을 하게 될 경우에 ‘정말 좋은 녀석’ ‘아주 좋은 사람’과 같은 사전정보를 제공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하여 만나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고 이야기를 해봐도 친구가 이야기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경우 있죠. 조건은 갖추어져 있는데 두근두근 거리지 않는.

이러한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사랑이 시작되어 사랑에 폭 빠지게 된 계기라는 것은 학력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신장이라든지 얼굴 생김새 그리고 옷을 입는 센스와 같은 외형적·정량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방긋방긋 웃으면서 얄전해 보이는 소녀의 눈에 때때로 스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라든지, 흉악한 얼굴을 하고 있는 소년이 버려진 고양이를 볼 때에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자애 넘치는 시선’이라든지 그러한 의외성이 가슴이 찡렁 내려앉는 계기가 되죠. 대개는.

하지만 그런 것은 ‘실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아 이 사람에게는 그런 점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나 혼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근두근 거리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길을 걷다가 보니 길 위에 5만 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그 누구도 그것을 캐치하고 있지 못할 때에 두근두근 거리죠. “아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다. 내가 다섯 발자국 갈 동안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면 이 돈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걷는 다섯 걸음은 두근두근 거리죠.

그것은 과학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떤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계속해 나가는 도중 아무

래도 자신이 탐구하고 있는 바로 이것은 노벨상을 받을만한 새로운 발견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Nature』 라든지 『Science』 에 투고할 마음이 들어서 누군가 이것과 똑같은 법칙을 자신보다 먼저 발견한건 아닌가 싶어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를 보면 심장이 뛰어나올 정도로 두근두근 거리게 되죠.

이 사례는 ‘두근거림’의 전형적인 경우입니다만 ‘아무도 느끼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 것을 나 혼자만이 알고 있었다’ 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아마도 사람에게 있어 ‘내가 나라는 것’의 확실한 존재증명을 획득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겠죠.

사랑도 과학의 실험도 그러한 의미에서는 아주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사랑에 빠지게 된 계기를 대개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모르는 이 사람의 훌륭한 점을 나 만 알고 있다”라는 문형으로 표현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좋은 점’을 나도 똑같이 아는 것만으로는 사랑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선생도 똑같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선생의 훌륭한 점을 나만 알고 있다는 ‘오해’로부터 밖에 사제관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연애에 관한 저의 설명을 ‘응 그래 맞아’라고 고개를 끄덕이는 여러분도 선생 이야기가 나오면 곧바로 납득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해서 조금 차분히 이 문제를 논의해 보기로 하죠.

사제관계라든지 교육의 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배울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하면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특정한 지식과 기술을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대가와 교환하여 수여 받는 것’ 이런 식으로 정의해도 되겠습니까?

이 정의로 좋습니까? 정말로?

자 그러면 일단 그렇다고 해봅시다.

그 때 배우는 학생 측이 가르치는 선생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안게 되는 경우와 별로 경의를 안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죠.

그러면 그 차이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면 경의를 안게 되지만 별로 유용성이 없는 것이라면 존경을 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습니까? 아니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앞에서 논의한 연애의 예를 떠올려 보세요.

좋아하게 된 사람의 예컨대 ‘스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량적으로 많은지 적은지 양질인지 질이 떨어지는지와 같은 비교계량을 한 후에 우리들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스펙’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여 ‘배운다’는 것을 선생이 유용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서 학생이

치러야할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거래’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동판매기처럼 동전을 넣으면 ‘자격’과 ‘졸업장’이 나오는 것이라고

그런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확실히 자동판매기에 ‘뭐가 ’들어있는지와 같은 ‘내용물’이야말로 중요한 문제이겠지요. 콜라를 구입하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컵라면이 나오면 곤란합니다. 하지만 배운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